

광주·전남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엄수

姜시장 “나라사랑 정신 잇고 보훈복지 틈새 메울 것”

김지사, 선열 정신 이어 ‘모두 살기 좋은 전남’ 다짐

광주·전남에서도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다. ▶관련기사 4면

광주시는 이날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강기정 시장과 보훈단체장, 전물군경유족, 상이군경, 보훈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추념식은 묵념, 헌화, 분향, 추모헌사, 추념공연, 현충의노래 제창, 위패봉안소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 정각에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사이렌에 맞춰 묵념을 한 뒤, 강 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등이 무명용사들을 모신 제단에 헌화와 분향했다.

전물군경유족 김인자씨와 그의 손녀 김진리씨의 추모헌사 ‘하늘의 모서리에 서의 낭송과 바리톤 염중호, 피아니스트 권현, 무용가 김호은씨의 추념공연 ‘산아’가 이어지며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에 대한 추모분위기를 고취시켰다. 또 광주시립합창단의 현충의노래 제창으로 행사의 막을 장식했다.

강기정 시장은 “나라와 공동체를 지킨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후대에 정신을 잇기 위해 보훈복지 틈새를 메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살피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자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 사랑을 가르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해남 현충탑에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추념식엔 김영록 지사, 명현관 해남군수, 보훈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울린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 후 헌화 및 분향, 도지사 표창, 추념사, 추모편지 낭독 및 추모공

연,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장렬히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예우에 정성을 다하겠다”며 “선조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낸 소중한 이 땅을 민주와 평화가 꽃피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모두가 살기 좋은 ‘생명의 땅 으뜸 전남’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6일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 해군함대와 함께 하는 호국문화제, 안보사진 전시회 등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또 6월 한 달간 전남도 청사 외벽에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문구의 대형현수막을 걸어 호국보훈의달을 기념한다. /김재정·박선강 기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광주·전남에서도 거행됐다. 이날 남구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강기정 시장이 위패봉안소를 찾아 위패를 뒤으며 유족을 격려하고 있다(왼쪽). 김영록 전남지사가 해남군 해남읍 현충탑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전남도 제보>



전남도는 6일 “우즈베키스탄 중앙정부 및 기업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방문단이 강진에 있는 태양광 모듈 제조 기업인 SDPV를 방문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방역 주력

시설 보강 98억 투입...현장교육·지도 등 총력 대응

전남도가 2023~2024년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6월부터 사전 방역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방역시설 보강에 98억원을 투입, 방역전문가 1대1 현장 밀착교육, 농장 방역 지도 등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모든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시설 운영 요령, 기본 방역수칙, 과거 발생농

장 미흡 사항 등에 대해 방역 전문가인 수의직 공무원을 총동원해 1대1 현장 밀착교육을 한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7월까지 모든 가금농장 방역시설을 1차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조치하고 9월까지 2차 확인 점검을 추진하며, 자동화소독시설, 야생조류퇴치장비 등 방역시설 보강을 위해 예산 98억 원을 투입한다.

전실에서 오염 방지를 위해 전실의

오염·청결구역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이나 발판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구역에서 방역실과 사육시설의 출입구까지 확대 설치토록 해 농가 방역수칙 준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산란계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10만마리 이상 농장에 터널식 소독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오리 농가에서 축사 바닥 로터리 작업 및 왕겨 살포작업 시 장비 소독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 축사간 방역통로를 설치해 장비 및 왕겨를

축사내 보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가축 소유자 등의 승용 차량 등이 방역조치 없이 농장에 출입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 관계시설 출입 승용·승합 차량에 대해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등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토록 했다.

전남도는 방역시설을 개선하고 방역 교육 및 사육 제한 참여 등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한 가금농장에 방역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정대영 동물방역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민·관이 합심해 방역의식을 높이고 방역시설을 보강해 겨울철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선진지 경험 소각시설 이해 높인다

광주시, ‘아산시 자원회수시설’ 견학 진행

광주시는 6일 “자원회수시설(소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과 자치구 담당자 등 40여명이 지난 5월25일과 6월1일 2차례에 걸쳐 아산시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은 200/일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돼 있다. 자원회수시설과 함께 장영실과학관, 생태근충원, 소각공목을 활용한 전망대 ‘그린타워’ 등 알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했다.

또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은 수영장, 건강문화센터(목욕탕, 찜질방 등), 생태근충원 등 공원내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에서 운영

하는 세탁공장에 열원을 공급하고 있다. 인근 산단에는 스팀을 판매해 연간 30억~40억원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

아산시 자원회수시설은 입지 선정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돼 폐기물처리시설을 에너지 생산기지로서 이익을 공유하는 한편,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한 주민친화형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연간 8만~30만 명이 찾는 지역 명소로도 꼽히고 있다.

광주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입지 후보지 응모에 관심이 있는 마을에서 신청할 경우 별도 선진시설 견학 추진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우즈베키스탄, 신재생에너지 교류

우즈벡 산업부, 강진 태양광기업 방문 협력 논의

전남도는 6일 “우즈베키스탄 중앙정부 및 기업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방문단이 강진에 있는 태양광 모듈 제조 기업인 SDPV를 방문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산업부(MIT)와 전자산업협회(Uzeltexsanoat) 등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지난 ‘KOR-UZB 에너지워크’ 행사를 통해 전남도와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3년 내 전국에 총용량 4천300MW의 재생에너지 시설을 가동하도록 대통령령이 발효됐다. 이에 각 주의 공공·개인 건물, 개인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우즈베키스탄과 업무협약을 통해 타슈켄트주와 호레즘주의 개인용 주택 등 융복합 사업 대상 50만가구, 약 2조원 규모의 보급사업 참여 기회를 만들었고 최근엔 도내 한 기업이 3MW의 물량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어 이 기업은 13MW 물량의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다.

우즈베키스탄 관계자가 방문한 SDPV사는 강진일반산업단지 입주한 태양광모듈 생산 기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 공장을 설계 중이다. 약 200억원 규모의 현지 공장 설립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 모듈을 생산해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는 복안이다. /김재정 기자

도, 여수서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전남도는 지난 5일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환경보전 의식을 확산하고 환경보호 실천 생활화를 다짐했다.

기념식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황성환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전남·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학

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인 환경의 날 기념 메시지 전달을 위한 샌드아트 공연을 시작으로 환경보전에 공로가 큰 환경유공자 표창 전달 순서 등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환경의 날’인 5일이 포함된 1주일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하고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를 주제로 11일까지 ‘제2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화순읍 대단지 아파트입구 빌딩부지를 급처분합니다.

- 1) 주거1종 대지1,505㎡
- 2) 2차선 도로변 앞면넓음 직사각토지
- 3) 유동인구 많음
- 4) 지상물 전무 나대지 바로 건축 가능
- 5) 병의원, 쇼핑센터, 오피스텔, 주차빌딩 등 다용도부지
- 6) 매매가: 원매자 상담후 시세이하 [급처분]합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장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갖고있습니다.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원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른 상담◀

정차적 편의 법적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임 대
- 판매
-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8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